

광양시, 출산장려 위해 난임부부 지원 확대

체외수정 시술 4회→10회로
모든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지원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들기 총력

광양시가 난임부부의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시책에 나섰다.

시는 그동안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 가정에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을 최대 4회까지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추가 확대로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횟수와 연계해 기존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 4회와 더불어 동결배아, 인공수정 각각 3회 등 총 10회까지 확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만 44세 이하 법률혼 난임 여성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금까지 포함해 1회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시 자체사업으로 정부지원 10회를 받고도 임신에 실패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200만원을 1회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난임부부는 정부지

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시 보건소 통합보건지원과로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산모·신생아를 위해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 도우미)를 지원한다.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일이다.

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자격요건에 따라 최대 20일

까지 건강관리사를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광양에 거주할 경우 소득에 관계 없이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서비스 이용 시 10%의 금액만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시가 지원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확대 지원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일 세풍일반산업단지에서 주민들과 함께 새해맞이 행사를 개최했다. <광양경제청 제공>

광양경제청 시무식 대식 마을주민과 소통의 새해맞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일 세풍일반산업단지에서 세풍리 삼성마을 등 6개 마을 주민과 광양읍사무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맞이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매년 광양경제청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시무식을 생략하고 세풍마을 주민과 소통의 자리를 갖기 위해 마련했다.

신년하례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는 이장국 투자유치본부 주무관 등 직원 대표 4명이 주민과 소통하고 세풍산단 조지분양과 일자리 창출 등 투자유치 의지

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황금돼지해를 맞아 세풍리 마을 주민과 광양읍사무소, 광양경제청 등 참석자들이 건강과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며 덕담을 나눴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자체 시무식을 생략하고 세풍리 마을 주민과 함께하고 소통하기 위해 새해맞이 어울림 행사를 개최했다"며 "앞으로 민·관이 소통·협업을 통해 가장 모범적이고 잘사는 세풍 마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부담 0%' 실현 나선다 광양시, 신보재단 등과 업무협약

자금난 해소·경영 안정 기대

광양시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부담 0% 실현'에 나선다.

광양시는 최근 시청 접견실에서 전남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광양시새마을금고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광양시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액의 12배에 해당하는 24억원 범위 내에서 금융지원과 100% 전액보증을 실시하는 '광양시소상공인 전사인 특례 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전남신용보증재단의 100% 전액보증서를 담보로 2년간 3000만원까지 연 3%의 고정이율로 소상공인 융자금을 대출해주는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지원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2년간 연 3%의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원하게 되며, 이에



정현복 광양시장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기관 대표들이 최근 시청 접견실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따라 소상공인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가 없게 된다.

특히 100억원 상당의 금융융자가 가능해져 지역소상공인 400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은 전남신용보증재단광양지점을 방문해 보증서발

급 후 광양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기를 펴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무이자 지원을 승낙해주신 전남신용보증재단과 농협은행 등 금융관계자에게 감사의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 이

자부담 0% 실현뿐만 아니라 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행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설개선키 지원으로 소상공인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1213개 업체에 200억원 규모의 금융융자와 8억 4000만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재해예방사업 평가 3년 연속 우수

재정 인센티브 10억원 받아

광양시는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평가 결과'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광양시는 이번 수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과 더불어 국비 재정 인센티브로 1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 재해

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은 사·도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추천한 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차 사·도 평가를 시작으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가 실시됐다.

평가분야로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조기 집행, 재해위험 개선효과, 안전관리 대책, 유지관리 실태, 주민의견 반영 여부, 친환경적인 설계 및 공법적용, 현장시공 상태 등 67개 항목(서

면점검 46개, 현장점검 21개)이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재해예방사업 조기집행과 안전관리 대책, 재해위험 개선효과, 현장시공 상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구 3개소(진월 외랑·월길, 광양 익신)에 182억 원, 급경사지붕괴 위험지구 8개소(골약 도이, 진상 섬거, 광양 오성, 중마 금광·성호·와우, 진월 광덕, 육곡 백암)에 3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의 선제

적 정비와 다양한 안전시책 추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 역량을 집중해 나감으로써 안전에 강한 도시 입지를 굳건히 다져가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광양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항 배후단지~성황도이지구 연결 성황고가교 착공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이 광양항 동측배후단지와 배후에 위치한 광양 성황도이지구를 연결하는 성황고가교 공사를 착공했다.

여수해수청에 따르면 고가교를 통해 양 지역이 연결되면 운송 거리가 축소되고 그만큼 항만 배후단지의 운영도 좋아질 전망이다.

성황고가교 건설사업은 수로와 철길로 단절된 동측배후단지와 성황도이지구 구간 연결을 위해 교량 495m를 포함해 4차선도로 844m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344억 원을 들여 2021년 12월까지 공사가 진행된다.

이 사업은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가 2016년 2월 사업 필요성을 건의함에 따라 사업 적정성 검토를 거쳐 2017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설계를 한 바 있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성황고가교 건설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항만 배후단지의 개발을 촉진하고 물류 기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웰니스팜 광양스토리' 상표 등록

광양시가 광양 매실 등 농 특산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한 공동브랜드 '웰니스팜 광양스토리'의 상표 등록을 마쳤다.

웰니스팜(Wellness Farm) 광양스토리는 광양시의 농촌 융복합산업 대표 브랜드다.

우수한 농특산물을 생산·판매해 현대인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다양한 체험행사 등을 위해 만들었다.

웰니스팜 광양스토리로 지정된 상품은 화장품과 가공식품, 녹차, 한과, 매실주, 음료, 천연 염색 등 181개에 달한다. 광양시는 이번에 상표로 등록한 웰니



스팜 광양스토리를 활용해 치유 공방이나 마을 체험행사, 농산물 가공 제품 홍보에 활용하는 등 농가 소득을 높이기로 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특집

키농작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9년 1월호

12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새해 '워라밸'하세요

- '워라밸'로 바꾸는 라이프 스타일

- 워라밸 문화의 중심, 생활문화센터

- '문화관광도시' 부산을 가다

신년기획-2019트렌드

2019 기해년

나만의 컨셉을

연출하고, 필환경의

감성으로 거듭나기

해외 문화 현장⑤

네덜란드 헤이그

마우리츠하위스미술관

세계미디어아트시티를 가다①

예술교육과 일상에 빛 밝힌

독일 칼스루에 ZKM

예향이 만난 이 사람

'2년차 기적' 이룬 광주FC 나상호

청룡영화상 수상 광주 영화감독 허지은

예향 초대석

요리와 연기의 고수

김수미

"내게 음식은 그리움, 요리는 행복"

문학이 숨 쉬는 문학관을 찾아서⑧

통영 바다 달은 유지현의 시

청마문학관

화제의 전시

외로운 생애, 따뜻한

그림으로 남은 화가 박은용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⑨

우리 시대 스타 메이커들

별들의 만드는 장인들

정운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⑨

로버트 모제스 Vs.

제인 제이콥스

화제의 공연

80년의 뜨거운

2018 소리모아 무대

한국영화 100년, 남도 시네마 산책①

한 세기 남도의 영화 "레디 고"

1900년대 초 영화관부터

지역의 영화, 감독, 작품까지 조명

문화도시, 도서관이 미래다①

'책 읽는 서울' 이끄는

지식문화발전소

서울도서관

문화

희재

목포 김우진 골목에서 드라마보다 진했던

천재 극작가의 문화와 사랑 만나다

자연으로 들어가는

그 길 구례

압화, 반달곰, 지리산 숲길과 동행

산동마을 산수유 꽃달길 "봄은 추억"